



준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nia.com



‘부탄’의 행복 애타간 TV

가난해도 행복한 나라로 유명한 ‘부탄’의 국민행복도가 3년 만에 뚝 떨어져 관심을 끈다.

‘영국 신 경제재단’(NEF)이 발표한 국가별 국민행복지수(HPI)에서 부탄은 세계 8위에서 17위로 추락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년 초 수백달러에서 최근 5000달러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행복도는 도리어 떨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산간 마을까지 보급된 TV에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불교와 농사만 알던 사람들이 TV를 보며,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진 결과다.

반면, 코스타리카(1위), 도미니카(2위), 자메이카(3위), 쿠바(7위) 등 ‘게으른 나라’로 치부돼 온 중남미 나라는 상위권을 휩쓸었다. 가정과 국가는 가난해도 이웃과 함께 노래와 춤을 즐기는 그들이 10위 안에 9개 국가나 차지했다. 일본 75위, 미국은 114위, 한국은 68위였다. 특히 유전이 발견됐음에도 ‘생태보호’를 위해 시추를 막고 에너지 사용량의 99%를 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 코스타리카의 1위는 많은 운하 등 개발일변도의 정부정책에 교훈을 주고 있다.

불자들은 경제적인 부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일시적 만족감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돈’을 추구하는 이는 자신이 재력을 더 가져 더 행복하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뿐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도 비슷한 경제수준이 되면 그로 인한 만족감은 떨어진다. 결국 사회가 부자가 될수록 과시를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절대빈곤을 벗어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영국 워릭대의 연구진은 80개국 200여만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 중 40대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낀 반면 70대는 어릴 때 더불어 가장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가 행복한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동년배의 죽음을 지켜보며 남은 삶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복은 마음쓰기에 따라 다르다. <법구경>에는 ‘탐욕의 그물로 가리고 애집(愛執)의 덮개로 싸워 감옥에 스스로 묶어 놓으면 고기가 통발 속에 들어간 것과 같이 노사(老死)의 옛 보는 바가 된다’고 이른다.

당장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주변의 힘든 다른 이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돈 걱정일랑 집어차우고 말이다.

“중회모독 참회하라” 자정센터 성명

제18회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종헌개정 표결 처리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펼쳐 보였던 무애 스님에게 참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 이하 자정센터)는 7월 7일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무애 스님의 참회를 다시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정센터는 성명서에서 “무애 스

님은 종헌개정 표결 처리과정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장난스럽게 펼쳐는 행위를 벌이는 등 중회를 모독하고, 중회의원으로 풀위를 손상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정센터는 “중회위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스스로 참회하고 사과해 중회의 권위와 중회의원 개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될 좋은 선례를 남겨달라”고 촉구했다. 조종섭 기자

사찰이 위기가정 돌본다

용주사·봉선사, 경기도와 손잡고 ‘무한돌봄’ 사업협력

경기지역의 조계종 교구본사인 용주사·봉선사가 경기도와 함께 위기가정과 저소득 계층을 돕기 위해 나섰다.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과 봉선사 주지 인목 스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7월 6일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업무협력을 맺고, 어려움에 처한 도내 저소득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학대와 이혼, 유기 등 위기상황에도 정 부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이 불가능한 저소득계층을 도와주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으로 두 교구본사는 전담추진기구로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설치되는 ‘무한돌봄센터’와

더불어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를 배가 시킬 전망이다. 용주사와 봉선사 등 교구본사를 위시한 160여 지역 말사들은 위기가정을 발견해 무한돌봄센터에 알려주고, 신도회 자원 봉사자를 통해 위기가정 봉사 등을 지원한다. 또 웹플스테이를 통해 위기가정·노숙인을 대상으로 희망인문교육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어려운 이에게 자비를 펼친 부처님 가르침과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이 다르지 않다”며 “협약을 계기로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봉선사 주지 인목 스님은 “봉선사를 비롯한 경기지역 불교계는 자원 봉사 등으로 지역복지에 나섰다. 이번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펴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는 “예부터 나라가 어

려움에 처했을 때 불교계는 스스로 나서 나라를 지켜왔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도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사랑이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무한돌봄사업에는 그동안 위기가정 1만652가구에 약 61억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했다. △경기도공동모금회(간병비 등 30억원)와 △도내 206개 민간병원과 4200개 약국(진료비 감면, 의약품 지원) △421명의 변호사(무료법률상담) △230명 경찰대학생(가정학습) △31개 시군 기독교총연합회(대상자 발굴) △농협경기지역본부(쌀 16톤) △경기도시공사(10억원) △대한양돈협회(돈육 1톤) 등과 협약을 맺는 등 참여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이 사업에 총 4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환경부·청와대·정부 협의체 구성 추진”

조계종 “사찰은 스님들의 삶과 수행공간” 홍보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전국 본 말사 주지스님 1500명이 모여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 등을 결의한 7·2 결의대회 이후 종단 방침을 밝혔다.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7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대회는 종단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종단 현안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한 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분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 언급했던 산문폐쇄나 전구승려대회 등 물리적 행동에서 대폭 완화된 입장이다.

장적 스님은 “결의대회 후 조금씩 답을 얻으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번 문제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인기가 끝낼 수 있지 않을뿐더러 국민여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환경부 등이 이미 제안한 협의체 구성도 결국 민원해결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다”며 “종단 입장이 관철되기 위해 자연공원법을 전면 개편해야 하기에 청와대와 국

회,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참여하는 ‘큰 틀로서의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에 용역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 협의체는 관련 위원회와 본말사 의견을 수렴해 총무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계종은 1차적으로 전국 80여개 사찰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서명을 받는 등 대국민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정각선원 개원 14주년 봉헌법회

국회 정각선원이 ‘맑은 정신과 올바른 깨달음의 도량’으로 다시 태어났다.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정각(회장 최병국)과 직원 불교신도회(회장 김창호)는 정각선원 내부를 새로이 단장하고 7월 9일 개원 14주년 봉헌법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지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공사를 뛰어넘어 항상 자비와 지혜로 연민중생, 파사현정을 실천하며 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

“수행하는 군종교구 만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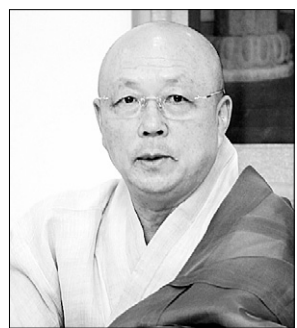
제2기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 임명

군종교구의 새 선장으로 자광 스님(용인 반야선원 회주)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9일 총무원 4층 집견실에서 군종특별교구장 임명식을 갖고 제2기 교구 출범을 알렸다.

자광 스님은 임명식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책임감이 무겁다. 1기 군종교구가 잘 한 점을 있고, 미숙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자광 스님에게 “힘든 위치인 것을 알기에 축하보다 위로를 먼저 보낸다”며 “열심히 군포교 위해 일해 달라. 특히 군종교구와 종단의 관계가 밀접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총무부장 원학 스님, 기획실장 장적 스님, 재무부장 정년 스님, 사회부장 세영 스님, 호법부장 정만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등 총무원 부·실장스님이 함께 했다. 또 제2기 군종교구 인수팀장을 맡은 정범 스님(중앙총회의원)과 예비역군승모임 허은 스님(죽전포



자광 스님

교당), 고경 스님(조계사 사회차장)도 배석했다.

임명식에 이어 기자회견을 연 자광 스님은 “군종교구장은 벼슬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열심히 뛰며 시주 받아 군승들이 신바람 나는 포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이기 동안 연간 5만 명 장병 수계 및 사회 복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이 당부했듯 군종교구와 조계종의 협조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총무원에서 (군승들이) 가사 장삼을 수하고 스님들과 자주 회의를 갖도록 할 계획”이라며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행정 분위기의 군종교구에서 수행풍토의 교구본사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자광 스님은 7월 24일 오후 5시 서울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2층에서 이·취임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군포교 활동을 들어갈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21일 취임법회에 참석해 달라”

동국대 정련 이사장 지관 총무원장 예방서 요청

동국대 제36대 이사장 정련 스님이 7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동국대 신임 이사장 정련 스님(오른쪽)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는 지관 스님.

정련 스님은 “법인이 안정해 학교 본부와 화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관 스님은 “여러 경험이 많으시니 잘 챙겨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화답했다.

정련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은 누구보다 학교를 잘 알고 계시니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겠다. 지혜로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러 스님은 “(동국대가) 종립학교라 종단과 관계가 중요하다.

입학식과 졸업식에 총무원장스님이 법문해 주신다면 학생 등 동국대 구성원들의 신심이 고

양될 것”이라며 “21일 이사장 취임법회에 참석해 꼭 법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학교행사는) 총장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며 말을 돌렸으나, 정련 스님은 “(취임식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겠다”고 정리했다.

조종섭 기자

태고총림 선암사 전산총회 의결 공고

의결 사항

1. 기존 선암사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사법사규를 부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2. 현재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되어있는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소재의 도선암을 “도선암”으로 경정등기하여 기존대로 선암사 말사로 환원시킨다.
3. 선암사와 조계종간의 오랜 분규를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중회의원과 소임 선출

1. 중회의원
금봉, 보안, 상명, 성관, 성암, 시각, 운범, 원문, 월인, 월호, 정안, 지상, 해신, 혜정, 호명스님(가나다순)
2. 중회소임
의장: 호명스님, 부의장: 운범스님, 총무: 시각스님, 서무: 정안스님

태고총림 선암사에서는 2009년 6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적묵당에서 재적승려 전산총회를 열어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재적스님 92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적승려 전산총회 임시의장 윤법천 스님의 사회로 열린 이 총회는 시종 일관 열띤 설전이 이어졌고, 그 동안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현안이 다루어졌으며, 거의 만장일치로 많은 현안이 의결되어 방법은 다르지만, 선암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